

광주·전남 편의점·동네 슈퍼 ‘코로나 효과’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4500억 돌파...2년 전보다 24.8% 급증 백화점·대형마트 소폭 감소...지난해 전남 면세점 카드 사용 '0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지난해 광주·전남 편의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4500억원을 넘겼다.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카드 소비는 줄어든 반면, 편의점과 동네 슈퍼 사용은 늘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 9조9740억원·전남 8조8668억원 등 18조8408억원으로, 전년 사용액(17조8323억원)보다 5.7%(1조85억원) 증가했다.

광주 카드소비는 전년보다 4.8%(4599억원) 증가했고, 전남은 6.6%(5486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광주 는 2.4%(-2502억원) 감소, 전남은 5.2%(440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쓴 종합소매 부문 금액은 지난해 광주 2조663억원·전남 1조8236억원 등 3조8899억원으로, 전년보다 5.4%(2000억원) 증가했다. 2년 전보다는 4.5%(1683억원) 늘었다.

지역민들의 카드소비를 살펴보니 최근 2년 동안 편의점 소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는 소폭 줄어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전남 백화점 카드 사용액은 2019년 6588억원, 2020년 5621억원, 2021년 645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백화점 카드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2.1%(-138억원) 적은 규모였다.

대형마트·유통전문점 사용액도 1조5940억원(2019년)→1조5409억원(2020년)→1조5771억원(2021년) 등 2년 새 1.1%(-169억원)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소비는 최근 2년 동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지역 편의점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 2072억원·전남 2454억원 등 4526억원으로, 2년 전보다 24.8%(899억원) 급증했다.

광주·전남 편의점 카드소비는 2019년 3627억원, 2020년 3994억원에 이어 지난해 4000억원대를 가뭇히 넘겼다.

슈퍼마켓 사용액도 1조1042억원(2019년)→1조1877억원(2020년)→1조2151억원(2021년) 등으로, 2년 새 10.0%(1109억원) 증가했다.

실질상 휴업에 들어간 전남 면세점 카드 사용액은 2019년 16억원, 2020년 3억원으로 줄고 지난해에는 '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확산 첫해 지역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카드 소비는 광주 287억원·전남 278억원 등 565억원으로, 2019년(340억원)보다 66.2%(225억원)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용액은 전년보다 65.7%(-371억원)나 급감한 194억원에 그쳤다.

광주·전남 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2019년 3조1391억원, 2020년 2조7841억원, 2021년 2조7479억원 등으로 하락세가 여전했다.

여행사와 자동차 임대업, 대중교통 사용액을 포함한 여행·교통 부문 역시 333억원→228억원→224억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단 지난해 숙박 부문 카드 사용액은 1482억원(광주 279억원·전남 1203억원)으로, 2019년(1328억원)과 2020년(1251억원) 규모를 웃돌았다.

스포츠·오락·여가 카드소비는 지난해 6968억원으로, 전년(6051억원)보다 15.2%(917억원) 증가했다. 2년 전(6640억원)보다는 4.9%(328억원) 증가한 규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빛 그늘’ MZ세대

20년 전 같은 연령대 대비 소득 1.4배·빚 4.3배 많아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이른바 'MZ세대'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훨씬 더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MZ세대(24~39세·1980~1995년생 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24~39세)의 1.4배로 집계됐다.

X세대(2018년 현재 40~54세·1965~1979년생), BB세대(55~64세·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이 2000년 같은 연령대의 1.5배, 1.6배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총부채의 경우 반대로 2018년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에 이르러 X세대(2.4배), BB세대(1.8배)를 크게 웃돌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수출 2개월 연속 20%대 증가

지난달 54억4400만달러 전년비 29.1% 늘어...석유·수송장비 등 호조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2개월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의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증가한 54억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1.6% 증가한 것에 이어 2개월 연속 20%대 증가율이다.

2월 수입은 46.8% 증가한 43억8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0억6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누계 수출은 전년 대비 25.9%, 수입은 44.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8억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수출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12억5100만 달러, 수입은 23.8% 증가한 7억

1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3400만 달러 흑자다.

전남의 수출은 전년 대비 43.7% 증가한 41억9300만 달러, 수입은 52.3% 급증한 36억6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2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석유제품(66.6%)과 수송장비(79.6%), 화장품(36.7%), 철강제품(20.3%) 등 주력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기업 ESG 경영 활성화 돕는다

광주상의-광주시, 지원사업 본격 추진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함께 지역내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ESG 경영 도입이 기업의 생산-재무-투자활동 및 신뢰성 향상을 제고해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ESG 관련 공시가 제도화되면서 올해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역 기업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설명회 및 온·오프라인 교육, ESG 경영 현황 진단, 경영지원 컨설팅, 경영지원위원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ESG 교육의 경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

한다. 또 조사자료와 책자, 뉴스레터 등을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해 지역기업 임·직원들의 ESG 경영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ESG 경영진단과 컨설팅은 ESG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별도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ESG 경영공시가 필요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계, 지자체, 학계, 금융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ESG 경영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지역기업의 ESG 경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ESG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대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ESG 경영 도입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불붙은 기름값

휘발유 1당 2000원 돌파...9년 5개월 만의 최고

15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당 20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9년 5개월 만의 최고 가격으로, 광주와 전남도 2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1당)은 전날보다 12.9원 오른 2000.95원을 기록 중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1당 2000원을 넘은 것은 2012년 10월 넷째주(2003.7원) 이후 약 9년 5개월 만이다.

지난주에 먼저 1당 2000원을 돌파한 서울 휘발유 가격은 이날도 전날보다 19.0원 상승한 2086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9주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초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 유가가 최고 수준이었던 이전의 시기는 2012년~2014년이다. 2012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휘발유 가격은 1당 2000원을 상회하다가 1900원대로 내려왔다.

시도별 휘발유 가격은 제주가 1당 2106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2086원), 인천(2023원), 대전(2020원), 경기(2016원), 울산(2013원), 부산(2004원) 등의 순이었다. 7개 시도의 휘발유 가격이 1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지역 휘발유 가격은 광주 1969.07원·전남 1971.61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10.95원, 13.32원 상승했다.

이처럼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



로 했다. 또한 앞으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최대치인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면 휘발유 가격은 1당 305원 내려가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마이데이터에서 마이 경품을 찾아라’

광주은행 내달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 자산을 더 많이 연결할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오르는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에서 마이 경품을 찾아라'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뱅킹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뒤 다른 금융기관 자산을 연결하고 행사에 응모하면 된다.

광주은행 마이데이터는 당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도 가입하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 자산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보유자산의 종류에 따라 현금·계좌, 투자, 대출, 소비, 보험, 연금 6개 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

으며 거래내역과 계좌의 상세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른 금융기관 자산을 하나 더 연결할수록 응모권 1회가 부여된다.

총 21명을 추첨해 콘솔게임기, 해외명품 카드 지갑, 호텔 숙박권, 골드바, 백화점 모바일상품권(20만원권) 등을 준다.

행사 기간 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신규가입 후 행사에 응모한 모든 고객에게는 카카오페이 2000포인트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내 집 시세를 조회하거나 실손보험 청구, 카드 사용금액 분석, 금융 일정 관리, 은퇴자금 설계, 생활 속 보조금 찾기 등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용관리 점수와 자동차 시세 조회, 배달 앱 연계 서비스 등 외부 제휴 서비스를 늘릴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특산물 한자리에 (중)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1층 광장에서 17일까지 열리는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 특집전'에서 '순천 전통된장'과 '여수 돌산 갯김치', '구례 표고버섯', '곡성 옥과 시과' 등 지역 직거래 특산물 150여 종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농어촌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획득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KSBCM-254호)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관리 표준'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재해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재해경감 활동을 평가해 유사시에도 조직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기능 연속성 관리체계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재난 발생 때 공사의 핵심 기능을 신속히 복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및 개선 검토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또 안전관리 총괄 조직인 안전경영실을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개편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기능연속성 시행 훈련을 통해 재해 상황에도 언제든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난재해에 대비한 통합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확보해 농어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1.53 (-24.12)
↓ 코스닥	871.22 (-1.22)
↑ 금리(국고채 3년)	2.285 (+0.002)
↑ 환율(USD)	1242.80 (+0.50)